

조선초기 軍事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최형국*

1. 머리말
2. 조선초기 전술체계와 기병전술
3. 조선초기 제주 馬政의 변화와 戰馬 확보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초기 世宗~世祖代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할 法典이나 국가방위의 핵심을 담은 兵書의 편찬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난 때였다. 특히 太祖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女眞¹⁾과의 대립이 극심하게 부각되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다. 이

* 중앙대학교 시간강사

1) 조선에서는 女眞에 대하여 생활방식에 따라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兀狄哈), 오도리(吾都里)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서는 野人이라는 표현이 주로 등장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술 상에는 女眞으로 통일하고 원사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부족명과 野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조선과의 군사적 대립이 국경과 인접한 野人女眞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기에 지역적 구분에 따라 명의 지역 행정단위 구분방식인 建州·海西·野人 중 하나를 사용

때문에 對女眞 군사방어책의 확립이 국가존속과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²⁾ 당시 조선은 국가의 기틀을 안정적으로 닦기 위하여 明과 사대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女眞族이나 倭寇를 대상으로는 교린정책을 펴는, 이른바 ‘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진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상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삼각구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조선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랐다.³⁾ 여기에 당시 여진족은 建州女眞, 海西女眞, 野人女眞 등으로 각각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일한 대화 창구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 중 야인여진은 압록강 동쪽의 서북지역과 두만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조선인들과 자주 충돌하는 등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조선의 기병강화 노력은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⁴⁾

太宗代부터 한계에 직면한 교린정책은 여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토벌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 世宗代~世祖代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 있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世宗代의 경우

한 것으로 보인다. 女眞에 대한 종족적 특성은 金九眞, 「조선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兀狄哈)」, 『白山學報』 68호, 백산학회, 2004의 논문을 참조한다.

- 2) 고려 말부터 서남해안을 집중적으로 침입했던 倭寇의 경우는 世宗 1년(1419) 三軍都體察使 李從茂를 중심으로 對馬島 정벌을 통해 기틀을 잡았고, 이후 癸亥約條를 통해 어느 정도 通交체제를 확립하였기에 당대 군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女眞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고를 참고한다. 金九眞, 「女眞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_____,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88, 백산학회, 2010.
- 3) 여기서 말하는 삼각구도의 핵심은 명의 통제권이 핵심이다. 당시 명 또한 北方과 南方의 문제로 인하여 요동진체를 통제하는 군사적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명도 만주지역의 여진족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요동장성을 쌓는 등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진과는 새롭게 관계모색을 찾아야만 했다.
- 4) 최형국,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9~10쪽.

집권초기부터 왜구에 강력한 군사대응책을 취하였고, 일정한 통제력의 확보에 성공하면서 南方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방의 대 여진 문제에 눈을 돌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영토 확장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世宗~世祖代의 경우는 당대 최고의 우환이 여진과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⁵⁾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병서들이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여진과의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여진족은 기병을 중심으로 소규모 부대를 이용하여 속전속결하는 국지전적 전투방식의 전술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군사적 대응도 여기에 맞춰 기병 중심의 전술을 채택해야만 했다. 기병을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戰馬의 안정적인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다. 당시 전마의 보급에 있어서는 고려대부터 元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제주마가 가장 확실한 보급처로 인식되었다. 즉, 제주 전마의 확보는 여진과의 군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었다. 따라서 제주 전마는 世宗~世祖代에 가장 많은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조선초기 여진과의 분쟁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와 당시 여진에 대한 조선의 정책 및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는 일정 정도 진행되어 왔다.⁶⁾

5) 朝鮮初期 女眞의 침입을 분석해보면, 太祖代 0, 正宗代 0, 太宗代 8회, 世宗代 30회, 文宗代 0, 端宗代 0, 世祖代 19회, 睿宗代 0회 등 世宗과 世祖代에 집중적으로 野人の 침입이 발생하였다.

6) 조선초기 여진과의 분쟁 중 太宗~世宗代 騎馬戰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李弘斗, 「朝鮮初期 野人征伐과 騎馬戰」, 『軍史』 41호, 軍史編纂研究所, 2000.이 있다. 그리고 앞서 女眞과의 관계 부분은 앞서 논고에 밝힌 金九鎭의 논문과 박정민, 「조선초기의 여진관계와 여진인식의 고착화」, 『韓日關係史研究』 35집, 韓日關係史學會, 2010.이 대표적이다. 국외의 논문으로는 국외의 논문으로는 于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交涉論析」, 『重慶三峽學院學報』, 重慶三峽學院, 2003; 王臻,

또한 조선초기 병서 편찬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다소 진행되기도 하였다.⁷⁾ 그리고 제주 전마의 경우는 馬政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⁸⁾ 그런데 여진과의 대립 속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기병 문제와 병서 편찬의 연관관계 그리고 전마 확보의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당대의 전투사적 변화와 병서와의 관계 그리고 그 전투에 핵심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에 대한 연관연구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연구하여야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초기 世宗~世祖代에 발생한 여진을 비롯한 북방민족과의 전투사적 특성을 살핌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병서편찬의 추이 및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전술체제 변화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군사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병과 연관 지어 당시 제주 전마 확보의 성과와 그 한계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초기 조선군 전술 변화의 구체적인 하나의 요인 및 그 특성을 밝혀내어 향후 군사·무예사 연구 부분에서 보다 유기적인 연구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建州女眞李滿住部與朝鮮王朝的關係探析」, 『滿族研究』, 遼寧省民族研究所, 2007; 陳放, 「朝鮮與女眞、滿族諸政權關係變遷研究綜述」, 『內蒙古財經大學學報』, 內蒙古財經學院, 2004. 등이 있다.

- 7) 조선초기 兵書에 대한 兵學史的 연구는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호,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 노영구,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추이」, 『역사와 현실』 30, 한국역사연구회, 1998; 尹武學, 「朝鮮初期의 兵書 編纂과 兵學 思想」, 『東洋古典研究』 49집, 東洋古典學會, 2010; 윤훈표, 「朝鮮 世宗代 陣法書 編纂과 訓練體系의 改編」, 『軍史』 81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11이 대표적이다. 또한 단행권으로는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군사편찬연구소, 2004; _____,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2, 군사편찬연구소, 2008가 내용별로 구분하여 兵書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 8) 조선시대 濟州 馬政과 관련한 연구는 元昌愛, 「朝鮮時代 濟州道 馬政에 대한 小考」, 『濟州道史研究』 4집, 濟州道史研究會, 1995; 南都泳, 『韓國 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_____, 『濟州道 牧場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이 대표적이다.

2. 조선초기 전술체계와 기병전술

가. 女眞과의 戰鬪 형태 분석

북방 야인들 중 女眞은 고려시대부터 북종과 배반을 수시로 거듭하면서 군사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조선초기 女眞과 발생한 군사적 분쟁은 太宗代 여진에 대한 1차 정벌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⁹⁾ 太宗代에 발생한 1차 여진정벌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인 騎兵 1,150명의 정벌군을 운용하여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포로를 즉각 석방하고 여진 지휘관에게 약간의 물품을 하사하는 등 회유책을 사용하여 마무리를 지었다.¹⁰⁾

반면 조선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女眞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었다. 이에 조선은 여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咸吉道와 平安道에 都觀察使와 兵馬都節制使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남방의 방어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軍統수편제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준비하였다.¹¹⁾ 이후 世宗 6년에 평안도를 軍翼道 체제로 변화시키고 압록강 유역의 방어선을 대폭 강화하였다.¹²⁾ 당시 이러한 방어적인 전략의 핵심에는 조선이 여진과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명나라와 국경선이 인접해 있어 추격을 비롯한 작전활동이 어려울뿐더러 향후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겨울을 날 식량을 지원하는 등 회유책을 주로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¹³⁾

그러나 世宗 15년에 발생한 建州衛都司 李滿住의 閔延禧공을 계기로 여진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이듬해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9) 太宗代 발생한 野人女眞과의 戰鬪史的 연구는 李弘斗, 앞의 논문, 2000, 219~223쪽.

10)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3月 9日, 乙亥條;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3月 16日, 壬午條.

11)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10月 15日, 丁酉條.

12) 『世宗實錄』 卷24, 世宗 6年 6月 13日, 丙辰條.

13) 『世宗實錄』 卷26, 世宗 6年 12月 19日, 庚申條.

제1차 婆猪江¹⁴⁾ 야인정벌이 전개되었다.¹⁵⁾ 당시 전투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平安道 都節制使 崔閔德이 朴好問을 시켜 치계하기를, 본도의 馬兵·步兵의 正軍 1만을 발하고, 겸하여 황해도 軍馬 5천을 거느리고 4월 초 10일에 일제히 강계부에 모여서 군사를 나누었는데, 중군 절제사 이순몽은 군사 2천5백 15명을 거느리고 賊魁 이만주의 성책으로 향하고, 좌군 절제사 최해산은 2천 70명을 거느리고 車餘 등지로 향하고, 우군 절제사 이각은 1천7백70명을 거느리고 馬遷 등지로 향하고, 조진 절제사 이징석은 군사 3천10명을 거느리고 올라 등지로 향하고, 김효성은 군사 1천8백88명을 거느리고 임합라 부모의 성채로 향하고, 홍사석은 군사 1천1백10명을 거느리고 八里水 등지로 향하고, 신은 군사 2천5백99명을 거느리고 正賊 임합라의 성채로 향하여,本月 19일에 여러 장수들이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을 마쳤습니다.¹⁶⁾

당시 전투편성 상황을 보면 전체 병력은 1萬 5千으로 이중 5천을 騎兵으로 구성한 대규모 정벌군을 편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는 騎步 대비 1:3의 수치지만, 전투력을 비교할 경우 騎兵에 더 많은 비중을 둔 戰術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¹⁷⁾

14) 婆猪江은 현재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환런현(桓仁縣)을 흐르는 강으로 현재는 등자강(佟佳江)으로 불린다. 고대에는 沸流水로 불리기도 하였다.

15) 당시 이만주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들과는 무관한 율적합이 일으켰다고 강변하고 자신이 잡혀가는 조선인을 구출하여 조선에 보내줬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믿지 않고 이만주의 소행임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강성문, 「世宗朝 婆猪野人の 征伐研究」, 『육사논문집』 30, 1986, 156~158쪽.

16) 『世宗實錄』 卷60, 世宗 15年 5月 7日, 己未條. “平安道 都節制使 崔閔德 差朴好問 馳啓 曰 宣德八年三月十七日 敬奉符教 將計 婆猪江寇 送至左符 參驗發兵 敬此 卽發本道馬步正軍一萬 兼領黃海道軍馬五千 四月初十日 江界府一會分軍 中軍節制使李順蒙 領兵二千五百十五 向首賊李滿住寨里 左軍節制使崔海山 領兵二千七十 向車餘等處 右軍節制使李恪領兵一千七百七十 向馬遷等處 助戰節制使李澄石 領兵三千一十 向兀刺等處 金孝誠 領兵一千八百八十八 向林哈刺父母寨里 洪師錫領兵一千一百一十 向八里水等處 臣領兵二千五百九十九名 直趨正賊林哈刺等寨里 本月十九日 諸將潛師勦捕訖.”

17) 일반적으로 기병과 보병의 전투력의 차이는 보통 기병1 대 보병 5-7명을 상대하

또한 정벌을 마친 후 야인들의 보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朝廷에 올린 보고내용에는 “步兵과 騎兵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야인들의 長技를 막고, 이후 적의 기습상황이나 패퇴상황에서 조선군 기병을 전진 배치하여 야인들을 몰아 낼 수 있다.”¹⁸⁾라는 당시 기병전술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明은 世宗代 발생한 1차 파저강 정벌에 대하여 都督이 직접 나서 문제제기를 했고,¹⁹⁾ 朝鮮은 그해 윤 8월 25일에 포로로 잡아 온 野人 151명, 말 37마리, 소 118마리와 재산을 송환해야만 했다. 이후 명의 압박과 조선의 전술적 판단에 따라 파저강 지역의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 이들을 국경지역의 藩籬로 삼고자 하였다.²⁰⁾ 조선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북방 여진에 대한 국경침입이 점점 거세지자 군사훈련에서도 女眞의 騎兵에 대한 방어책이 강조되었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준다.

(2) 結陣-중군이 각을 한 번 불면 각 군과 遊軍에서 馬兵이 먼저 나가서 사방으로 갈라 벌리어 선다. 중군의 다섯 휘가 다 나서고 북이 울리면, 각 군이 기와 북으로 여기에 응하여 각각 그 진형을 이룬다. 遊軍은 쇠 치는 소리를 듣고서 도로 들어간다. …(중략)… 무릇 陣을 설치 할 때에는 각 진영의 바깥쪽에 방패를 연이어 배치하고, 다음에 창과 장검이다. 다음에 火筒과 弓手요, 다음에 槍 가진 騎兵과 활 가진 騎兵이 진 안에 벌리어 서는데, 안팎의 진이 다 그리 한다. 각 군에는 각기 5所가 있는데 가로줄 5步에 한 사람씩 서고, 세로줄로 4보에 한 사람씩 서게 한다. 陣과 陣 사이에 진 하나를 용납할 만하게 하고, 隊와 隊 사이에 대 하나를 용납할만 하게 한다. 5인씩

는 것으로 전투력을 비교한다. 특히 宣祖實錄을 보면 騎兵과 步兵의 전투력의 차이를 1:10정도로도 기병의 전투력을 우세하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宣祖實錄』卷 114, 宣祖 32年 6月 己亥. 이러한 조선시대 기병과 보병에 대한 전투력의 차이 및 전술배치는 최형국, 앞의 논문, 2011. 참조.

18)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4月 26日, 癸酉條.

19) 『世宗實錄』卷60, 世宗 15年 6月 29日, 庚戌條.

20)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5月 29日, 乙巳條.

서로 뜻 맞는 자끼리 한 伍를 편성한다. 伍 안에 長이 있고, 2오가 小隊가 되는데 소대에 長이 있고, 5오가 中隊가 된다. 중대에는 正이 있고, 50인이 大隊이 되는데 대대에는 校가 있다. 50인이 모를지 그 중심을 결합하여 행진하고 정지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그 대에 모두 따라 붙어야 한다. 싸울 때에는 5오씩이 벌여서 將校가 뒤에 있어서 전투를 독려한다. 1천 명 중에서 2백 인을 나누어서 遊擊軍을 삼았는데 항상 그 軍의 후면에 있게 한다. (후략)²¹⁾

(3) 應敵-중군과 전충이 열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을 守兵이라 한다. 그리고 후충이 전투에 당할 때에 먼저 나와서 적군을 동하게 하는 것을 正兵이라고 하고, 좌우군이 전투에 당할 때에 옆에서 나와서 돌격하는 것을 奇兵이라고 한다. (무릇 적군에 응전할 때에는 隊마다 기를 달리 하는데, 騎射隊는 푸른 기를 잡고, 騎槍隊는 검은 기를 잡는다. 그리고 火燭弓手隊는 백기를 잡고, 步槍長劍隊는 붉은 기를 잡는다.) …(중략)… 무릇 군이 진을 나가서 적군과 응전할 때는 일제히 나아가 10보에 흩어져 서고, 馬軍도 역시 50보 이내에서 정지하여 전투한다. 적군이 패하여 달아나면 북과 각이 함께 울리면서 馬兵이 나아가 추격한다. 步兵은 대열을 벌이어 馬兵을 구원해 주며, 그런 뒤에 뒤따라 추격할 때에는 향오를 잃지 아니하고 쇠소리를 들으면 정지한다. 그리고 북이 급하게 울리면 다시 나아가서 급히 공격할 것이다. 만일 군을 거두어 퇴각하려면 중군에서 각을 한 번 불고 휘를 내리고 쇠가 다섯 번 울린다. 이후 각 군이 이에 응하여 각기 제자리로 복귀하고, 遊擊軍이 뒷막음하며 돌아온다. (후략)²²⁾

21) 『世宗實錄』 卷61, 世宗 15年 7月 4日. 乙卯條. “結陣 中軍角一通 各軍遊軍 馬兵先出 分布四方 中軍五麾皆點而鼓動 則各軍以旗鼓應之 各成其陣 遊軍聞金還入 … (中略)… 凡陣各面防牌連排 次槍長劍 次火燭弓手 次騎槍騎射 陣內布列 內外皆然 各軍各有五所 橫五步立一人 縱四步立一人 陣間容陣 隊間容隊 五人自相得意者結爲伍 伍中有長 二伍爲小隊 (隊)有長 五伍爲中隊 隊有正 五十人爲大隊 隊有校 五十人須結其心 行立前却 當隊并須依附 戰則伍伍而立 將校在後督戰 每一千人 以二百人爲遊軍 在其軍陣之後.”

22) 上同條, “應敵 中軍與前衝按列不動曰 守兵 後衝當戰時先出致敵曰 正兵 左右軍當戰時旁出突擊曰 奇兵(凡應敵時每隊異旗 騎射隊執青旗 騎槍隊執黑旗 火燭弓手隊執白旗 步槍長劍隊執赤旗) 中軍鼓一通 各軍遊軍先出四方 望候彼敵 角報其軍 其軍角報中軍 中軍吹角 而赤麾起伏 則前衝受敵也 黑麾指前鼓動 則後衝先出當敵 青白二麾指前鼓動 則左右軍旁出救之 一面受敵 他軍倣此 觸處爲前 皆以中軍麾鼓角之節而應之 若四面受敵 則望聽其軍旗鼓角之節而戰 中軍分兵往救 凡軍出陣 應敵齊進 十步而散立 馬亦不過五十步而止戰 敵敗奔走 則鼓角合動 馬兵進而追擊 步卒

위의 사료는 1차 파저강 정벌을 마친 후 군사훈련시 여진의 방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법의 형태이다. (2)의 사료를 보면 다양한 보병병종과 기병을 분산배치하여 여진의 접근을 막아내는 結陣의 형태이며, (3)의 경우는 전투가 시작되면 움직이는 應敵을 보여준다. 이 사료에서 보듯이 보병을 중심으로 中軍이 결진을 하면 핵심적인 전투는 말을 탄 騎射兵과 騎槍兵이 먼저 공격을 개시하고 후면에 창과 방패를 든 보병이 후미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좌우 측면은 騎射兵이 엄호를 하고 적에게 기습을 가할 때에는 이들이 먼저 적의 측면을 파고들어 적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말해 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는 騎射兵이 말을 달리며 화살을 쏘고, 이후 敵騎와 근접했을 때에는 騎槍兵이 근접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女眞을 방어하기 위한 戰法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에 보급되었으며, 이후 서북면 지역의 2차 야인정벌에 활용하게 된다. 당시 1차 야인정벌 이후 파저강 지역의 야인은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西北面을 비롯한 주변의 야인 부족들이 세력을 확대해 조선의 국경을 지속적으로 침탈하였다. 대표적으로 兀良哈의 경우는 世宗 17년 1월에 2천7백여 騎로 조선 국경지역의 거점지인 閔延城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世宗 19년 9월에 2차 야인정벌이 이뤄지게 되었다. 당시 작전상황을 보면, 9월 7일에 左軍 都兵馬使 上護軍 李樺와 右軍 都兵馬使 大護軍 鄭德成이 산양회에서 압록강을 건넜고, 정벌군 사령관인 平安道 都節制使 李蕝 등은 만포의 여울을 건너 11일에 古音閑 지방의 양옆을 동시에 쳐들어가는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²⁴⁾ 이때의

布列 救援馬兵 然後就次 追擊之時 不失行伍 聞金則止 鼓急則復進急擊 如欲斂軍 而退 則中軍角一通 磨伏金五聲 各軍應之 各復其局 遊軍殿而還之。”

23) 『世宗實錄』 卷67, 世宗 17年 1月 18日, 庚寅條.

24) 『世宗實錄』 卷78, 世宗 19年 9月 22日, 己酉條.

총병력은 騎步 7,800여 명이었으며, 정벌대상인 野人 李滿住 휘하의 병력이 약 400여 기로 판단되어 騎兵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이후 동월 16일까지 작전을 전개하여 파저강을 지나 올라산성까지 수색하여 야인의 근거지를 불태우고 적을 섬멸시켰다. 당시 전황을 보면 야인의 근거지를 모두 초토화시켰고, 약 60여명을 사살 혹은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아군은 단 1명의 전사자만 나왔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정벌이었다.²⁵⁾ 이후에도 사형수나 현장의 지리를 잘 아는 자를 골라 파저강 지역에 간자로 보내어 지속적으로 야인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女眞에 대한 긴장을 풀지 않았다.²⁶⁾ 이후 女眞에 대한 정벌작전 후 압록강 상류지역의 군사요충지에 4郡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켜 독자방어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세종 말년에는 몽고족의 일원인 오이라이트족에게 정벌군으로 나섰던 명의 황제 英宗이 포로로 잡히는 ‘土木의 變’이 발생했을 정도로 몽고족이 활발하게 부상하자 북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었다.

이러한 북방 민족에 대한 군사적 긴장 관계는 文宗代에도 가장 큰 關防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평안도를 비롯한 북방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직시한 인물인 金宗瑞는 前代 여진 정벌 시 핵심 魁首로 지목되었던 李滿住가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니, 만약 賊을 이끌고 휘몰아 들어온다면 어찌할 수가 없을 것 이라는 소문을 접하고 적의 주력이 騎兵이니 이에 대한 방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소하기도 하였다.²⁷⁾ 또한 同年 7월에는 中樞院使 金孝誠이 野人

25) 아군의 전사자 수가 적은 것을 비롯하여 1차 여진정벌에 비해 전과가 적은 사실이다. 이는 여진족들이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대적하기보다는 빠르게 명의 위수지역인 북만주 일원으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탐을 통한 빠른 현장정보가 정벌시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당시 조선군에서 보낸 정찰병이 여진에게 사로잡히는 등 현장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대규모 1차 정벌의 기억으로 인해 여진이 빠르게 대응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26) 『世宗實錄』卷78, 世宗 19年 10月 17日, 癸酉條.

27) 『文宗實錄』卷1, 文宗 卽位年 4月 20日, 癸巳條.

방비책을 조목별로 열거하며 북방의 방어태세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⁸⁾ 이후에도 咸吉道都管制使 李澄玉이 변방 야인들의 정세를 비밀리에 국왕에게 보고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²⁹⁾ 그러나 이 시기의 경우는 군사적인 정벌 보다는 식량을 나눠주거나 일정한 무역을 허용하는 등의 회유책을 구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막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후 端宗代에는 世宗代에 女眞 방어를 위해 건설한 4郡에 대해 여러 가지 방어유지책이 나왔지만, 지역이 험지이고 유기적인 방어책의 한계와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의에 따라 慈城郡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郡을 폐지하고 백성들을 龜州로 이주시켰다.³⁰⁾ 그리고 世祖代에는 마지막 자성군도 폐지하고 압록강을 경계로 자연 방어선을 유지하였다.³¹⁾

그런데 世祖代의 경우 여진의 국경 침략이 극심해 文宗과 端宗代에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침입회수가 實錄상의 기록만 총 19회에 달할 정도였다. 따라서 女眞에 대한 방비 또한 世宗代 수준으로 강화시키면서 여진부족 간의 내부문제에 깊이 관여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³²⁾ 특히 여진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수천의 기병을 이끌고 동시에 국경지역을 약탈하는 등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³³⁾ 그래서 초기에는 다양한 위무책을 포함하는 온건한 방식으로 관계 개선에 주력하다가 대규모 정벌군을 동원하여 군사적 위협을 보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진과의 관계를 풀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世祖 6년에 진행된 毛憐衛 지역의 여진 정벌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³⁴⁾ 이때에도 조선군은 騎兵 중심의

28) 『文宗實錄』 卷2, 文宗 卽位年 7月 18日, 庚申條.

29) 『文宗實錄』 卷4, 文宗 卽位年 11月 18日, 戊午條.

30) 『端宗實錄』 卷14, 端宗 3年 4月 13日, 戊子條.

31) 『世祖實錄』 卷15, 世祖 5年 1月 15日, 戊戌條.

32) 『世祖實錄』 卷10, 世祖 3年 11月 10日, 庚午條.

33) 『世祖實錄』 卷18, 世祖 5年 12月 16日, 甲子條.

전술체제를 구축하고 정벌준비를 하였다. 이후 이듬해에는 野人 7백여 명이 昌城鎮을 포위하자, 平安道都體察使 金磧이 주변 군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 천명의 騎兵을 이끌고 이를 저지하기도 하였다.³⁵⁾ 특히 世祖 末에는 각 지역의 여진족들이 연합하여 明의 동쪽 변방인 遼陽을 침략하여 약탈해 가는 횡수가 증가하는 등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어서 조선의 입장에서 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³⁶⁾ 위와 같이 조선초기 여진족과의 전투사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군의 변화된 전술체제는 기병 중심의 보다 빠른 움직임을 요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하여 전술의 핵심을 담고 있는 兵書에서도 기병을 보강하는 방식과 함께 적 기병의 전술을 적극 도입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 兵書編纂 推移 분석

女眞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朝鮮軍 또한 騎兵 중심의 전술체제를 兵法書를 통해서 보급하게 되었다. 이는 여진의 핵심 전술이 약탈 작전시 30~60명의 소규모 기병을 이용하여 속도전을 통한 ‘치고 빠지는 식’의 공격양상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女眞의 전술 특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4) 처음 女眞(女直)에는 步兵(步卒)이 없었고, 1천여 명의 騎兵만이 있었는데, 작은 木牌를 새겨 사람과 말에 달아 호령으로 삼았다. 50명을 1隊로 만들어 선두의 20명은 중무장한 갑옷(重甲)에 창(矛戈)을 쥐고, 뒤에 30명은 가벼운 갑옷(輕甲)에 활과 화살을 잡게 한다. 적을 만나면 반드시 2명은 말을 타고 달려 나가 적진의 虛實을 살펴서 사망으로 대오를 결성하고 두 방면에서 달려 들어가 공격하며, 1백보 밖에서는 일제히 활을 쏘아 맞추지 않는 것이

34) 申叔舟, 『北征錄』 卷1; 『世祖實錄』 卷21, 世祖 6年 8月 15日, 戊午條.

35) 『世祖實錄』 卷26, 世祖 7年 11月 21日, 丁巳條.

36) 『世祖實錄』 卷41, 世祖 13年 2月 29日, 乙丑條.

없었다. 이렇게 병력의 分散·集合·出入을 하면서 변화에 따라 싸우니 병사들은 스스로 전법을 가져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³⁷⁾

위의 사료를 보면, 朝鮮初期 女眞의 전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女眞軍은 보병 없이 기동력이 우수한 기병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50명 단위로 편제되어 빠른 작전능력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제 구성은 50명의 기병 중 20명은 방호력에 중심을 둔 重甲 騎兵으로 편성하고 근접전투에 유리한 창을 주력무기로 삼았다. 나머지 30명은 기동력에 중심을 둔 輕甲 騎兵으로 좌우로 몸을 많이 비틀어 활을 쏠 수 있는 騎射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전투시 작전 형태는 2명의 斥候를 먼저 보내 적진을 살핀 후, 군을 양 날개처럼 두 부대로 나뉘어 먼저 원거리에서 騎射를 이용한 밀집 화망구성을 하고 중기병을 이용한 접근전을 주력 전술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女眞의 전술체계에 따라 조선초기 조선군의 전술체계가 여진을 주적으로 삼았기에 이를 방어하고 물리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조선초기 병서의 간행흐름 역시 이러한 여진의 전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대표적으로 조선 최초의 병서인 鄭道傳의 『陣法』은 總論, 結陣, 論將, 戰備, 兵器·地形, 勝敗, 戰機, 攻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투시 진을 짜는 방법을 비롯하여 장수의 마음가짐과 실제 전투시 공격과 수비에 대한 실전 전투지침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³⁸⁾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이 극히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핵심적 전투지식을 요약한 형태로 판단된다.

이후 世宗代부터 兵書간행이 활발해졌는데, 이는 여진의 북방국경에

37) 『兵將說』, 「諭將篇」, “初女直 無步卒 惟騎兵千餘 刻小木牌 係人馬爲號 五十人爲一隊 前二十人 重甲持矛戈 後三十人 輕甲操弓矢 每遇敵 必二人躍馬而出 觀陳之虛實 四面結隊 二馳擊 百步之外 弓矢齊發 無不中者 其分合出入 應變周旋 人自爲戰 所以恒勝.”

38) 『三峯集』 陣法.

대한 침입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太祖부터太宗까지는 국왕 스스로를 비롯하여 핵심 장수들이 북방의 여진족을 비롯한 여러 이민족과 실전 전투를 치르면서 몸으로 습득한 전술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으나, 세대를 거치면서 이를 이론화하고 全軍에 보급하기 위해 병서간행이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된다.³⁹⁾ 특히 前代에 이뤄진 私兵혁파를 바탕으로 中央軍과 地方軍의 유기적인 통합훈련체제의 구축은 국가 방위력 집중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世宗 3년에 편찬된 『陣圖法』은 兵曹가 직접 관할하여 지은 兵書로 地方軍의 結陣法 강화 및 戰法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편찬되었다.⁴⁰⁾ 다음의 사료를 보면 『陣圖法』 편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5) 지방의 군사들이 전혀 진법을 익히지 않고 있으니, 실로 불가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각 도의 節制使들에게 명하여, 언제나 농한기를 맞으면 侍衛의 別牌와 그리고 營과 陣에 소속된 守城軍들을 각각 가까운 지역에 집결시키고, 陣法에 밝고 능숙한 지방 장관을 差使員으로 삼고, 품계가 있는 벼슬아치 중에서 선발하여 訓導官으로 삼아 진법을 미리 연습하게 하며, 節制使가 巡行하면서 大閱을 검찰하도록 한다.⁴¹⁾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군의 경우 世宗代 이전까지는 동일한 형태의 진법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世宗代에 北方 女眞과의 긴장관계가 심각해지자 지방군의 통제가 군사력의 중요한 변수였기에 중앙에서 파견된 각 道의 節制使를 통해 표준화된

39) 世宗代 편찬된 兵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정해은,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를 참고한다.

40) 『陣圖法』을 비롯한 世宗代 편찬된 兵書는 현재 단행권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世宗實錄』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陣圖法』은 兵曹에서 책 편찬에 대한 머리말을 시작으로 하여 行陣, 結陣, 應敵, 教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41)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7月 9日, 己巳條, “外方軍士 專不習陣 實爲未便 今後令各道節制使 每當農隙 別牌及侍衛 營鎮屬 守城軍等 各以附近聚會 以守令之明習 陣法者爲差使員 選品官爲訓導官 預習陣法 節制使巡行檢察 大閱時所閱軍士內 如有犯令者 都節制使及差使員 訓導等 竝從律文科罪.”

군사훈련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사료를 보면 당시 騎兵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모든 진의 각 面에는 隊伍를 지어 연하여 늘어서고(곧 지금의 방패(防牌)이다.) 다음은 槍·長劍, 그 다음은 火燭·弓弩, 그 다음은 騎槍, 그 다음은 騎射가 陣 안에 布列되고, 안과 밖이 모두 그렇게 합니다.⁴²⁾

위의 사료는 『陣圖法』에서의 結陣法으로 직사각형의 牌를 두른 방패수가 전면을 보호하고 후에 槍·劍手, 火燭·弓弩수의 보병이 陣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뒤로 騎槍兵과 騎射兵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결진 후에 일어나는 공방에서는 주로 보병이 진을 구축하며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후미의 기창과 기사병이 좌우로 돌아가 핵심된 공격을 펼치는 것으로 되어있다.⁴³⁾ 특히 적의 패주시에는 遊軍과 步兵이 넓게 대오를 벌여 騎兵을 지원하고, 기병이 단독으로 적에게 돌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⁴⁴⁾

또한 『陣圖法』에서는 소규모의 부대편제 방식을 운용하며 빠른 공방에 주력을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병과 보병의 거리를 6尺 간격(약 2m 내외)이고 기병대 기병은 12척(약 4m 내외)로 아주 조밀한 진형을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女眞騎兵의 기본 전술이 50명 단위의 소규모 돌격병으로 구성되었기에 조선군 보병은 조밀하게 진형을 이루고, 기병이 빠르게 반격하기 위해 편성한

42) 上同條, “凡陣各面住隊連排【卽今防牌】次槍長劍 次火燭弓弩 次騎槍 次騎射 陣內布列 內外皆然.”

43) 공격시에는 步兵이 10步까지 쫓아 나아가 흩어져 서며, 騎馬兵도 역시 50步까지 나아가 정지하고서 싸운다.

44) 적 패주시 遊軍과 步卒은 사면으로 포열하여 기마병을 지원한 다음, 대오를 정돈하고 제 위치로 돌아와 진형을 유지하는 것이 陣圖法에서 제시한 대적방법이다.

45) 후술하겠지만, 世宗 15년에 편찬된 『癸丑陣說』에서는 步兵과 步兵의 거리가 5步로 약 6m에 가깝게 넓게 3배 이상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五衛各有五所 凡一卒隔六尺 馬倍之.”)

전술로 판단된다.

이후 世宗 15년에는 女眞과의 분쟁이 심각해져 과거강 토벌을 비롯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이 발생하면서 전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女眞에 대한 직접적인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癸丑陣說』은 앞서 만들어진 『陣圖法』보다 실전을 상정하여 다양한 군사 움직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었다.⁴⁶⁾ 이는 『癸丑陣說』을 편찬한 사람들 중 河敬復과 鄭招가 실제 북방 방어에 종사한 장수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⁴⁷⁾

이런 이유로 世宗 초기에 편찬된 『陣圖法』과 『癸丑陣說』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진법의 구성 및 응적 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것이 특징이다.⁴⁸⁾ 구성순서의 경우 行陣, 結陣, 敎場, 軍舍, 應敵의 순으로 군령부분을 단독절로 독립하여 군사통제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병력배치에 있어서도 보병과 보병의 거리를 5보(약 6m)로 확대하고 기병의 경우는 이의 두 배를 뒤서 기병 운용의 폭을 넓힌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적을 만나 전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結陣과 應敵을 보면 『陣圖法』에서는 개략적인 전투상황을 상정하여 전통적인 五行陣을 중심으로 遊軍·馬兵·步兵의 움직임을 설정하였는데, 『癸丑陣說』에서는 奇兵과 正兵으로 구분한 후 鳥雲陣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형을 언급하면서 각 兵種에 따른 움직임과 대치상태를 확립하였다.⁴⁹⁾ 다음의 사료를 보면

46) 노영구,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주이」, 『역사와 현실』 30, 한국역사연구회, 1998, 286~287쪽.

47) 『癸丑陣說』도 현재 단행권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世宗實錄』에 원문을 삽입한 형태로 남아있다. 이 병서의 편찬자는 하경복·정홍지·정초·황보인 등인데, 이들은 世宗초기부터 북방개척을 주도하며 여진과의 분쟁에 군사적 대응을 담당하였다.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호,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 124~130쪽.

48) 『陣圖法』과 『癸丑陣說』의 구성상의 차이는 윤훈표, 「朝鮮 世宗代 陣法書 編纂과 訓練體系의 改編」, 『軍史』 81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11, 94~105쪽을 참고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應敵- …….(前略) 전소(前所)의 기사병과 중소(中所)의 기사병이 한 줄이 되어서 앞줄로 서는데, 전소 기사병은 나누어서 좌우 모퉁이의 조금 앞으로 서고, 중소 기사병은 가운데에 늘어서며, 다음은 전소의 기창병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중소의 기창병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전소의 화통 궁수가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중소의 화통 궁수가 한 줄이 되어 모두 다섯줄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정병(正兵)으로 적군을 대적하는 것이다.⁵⁰⁾

(8) 應敵- …(前略) 중소(中所)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화통궁수가 뒤에 있어 한 줄이 되는데, 좌우가 같이 안쪽에 맞붙게 하고, 다음은 좌소(左所)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화통 궁수가 뒤에 있어 한 줄이 되어 왼편에 있고, 우소(右所)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화통 궁수가 뒤에 있어 한 줄이 되어 우편에 있으며, 다음은 좌소의 기사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사병이 뒤에 있기를 두 줄로 하여 좌편에 있고, 우소의 기사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사병이 뒤에 있는 것이 한 줄로 우편에 있고, 다음은 좌소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창병이 뒤에 있고, 좌소의 화통 궁수와 중소의 화통 궁수가 대를 연하여 또 그 뒤에 있어서 한 줄이 되어 좌편에 있고, 우소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창병이 뒤에 있고, 우소의 화통 궁수와 중소의 화통 궁수가 대를 연하여 또 그 뒤에 있어서 한 줄이 되어 우편에 있으며, 다음은 후소(後所)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창병이 뒤에 있고, 후소의 화통 궁수와 중소의 화통 궁수가 대를 연하여 또 그 뒤에 있어서 한 줄이 되는데 좌우가 같고, 다음은 후소의 기사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사병이 뒤에 있어 한 줄이 되는데 좌우가 같이 외면에 여기저기 있게 한다. 그래서 모두가 좌우 각각 일곱 줄이 되나니, 이것이 곧 기병(奇兵)으로 옆에서 협공하는 것이다.⁵¹⁾

49) 『陣圖法』에서는 이러한 應敵시 병종배치는 생략되어 있다.

50) 『世宗實錄』卷61, 世宗 15年 7月 4日, 乙卯條. …“(前略) 前所騎射 中所騎射 爲一行在前行 前所騎射 分居左右角少前 中所騎射連排居中 次前所騎槍爲一行 次中所騎槍爲一行 次前所火燭弓手爲一行 次中所火燭弓手爲一行 凡五行 此乃正兵當敵者也.”

51) 上同條. “...(前略)中所騎槍居先 火燭弓手居後爲一行 左右同附裏面 次左所騎槍居先 火燭弓手居後爲一行在左 右所騎槍居先 火燭弓手居後爲一行在右 次左所騎射居先 中所騎射居後者二行在左 右所騎射居先 中所騎射居後者一行在右 次左所騎槍居先 中所騎槍居後 左所火燭弓手 中所火燭弓手連排 又居後爲一行在左 右所騎槍居先 中所騎槍居後 右所火燭弓手 中所火燭弓手連排 又居後爲一行在右 次後所騎槍居先 中所騎槍居後 後所火燭弓手 中所火燭弓手連排 又居後爲一行 左右同 次後所騎射居先 中所騎射居後爲一行 左右同散居外面 凡左右各七行 此乃奇兵旁出夾擊也.”

위의 사료 중 (7)은 『癸丑陣說』에서 응적시 正兵을 배치하는 하는 방법으로 전소의 騎射兵이 좌우에 배치되고 중간에 중소 騎射兵이 함께 1열을 이루고, 2열은 전소의 騎槍兵, 3열은 중소의 騎槍兵, 4열은 전소의 火燭·弓手, 5열은 중소의 火燭·弓手が 배치된 鳥雲陣의 준비 형태를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진형변화의 시작은 방패수들이 완전하게 中軍을 에워싸서 적의 돌격을 저지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이후 창검수들이 방패수 밖으로 이동하여 적의 근접전에 대비한다. 이때 騎射兵, 騎槍兵 모두는 下馬하여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며 공격신호에 따라 上馬한 후 적을 추격하게 된다.⁵²⁾

그리고 (8)의 사료는 鳥雲陣에서 奇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창과 화통·궁수를 전면에 배치(1열)하고 좌우에 열을 지어 좌소 기창과 화통·궁수는 왼편, 우소 기창과 화통·궁수는 오른편으로 배치하여 2열을 이루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기사병까지 좌우에 나뉘 배치하고 맨 뒤 7열에는 후소 기창, 중소 기창, 후소 화통·궁수, 중소 화통·궁수 뒤에 후소 기사를 배치하게 된다. 여기서는 기병과 보병을 한조로 묶어 적의 공격에 따라 다양한 공방을 전개하는 방식의 전법이 활용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鳥雲陣은 주로 북방의 女眞 騎兵이 사용했던 戰法으로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져서 향오를 이루지 않고 산개하여 전투하는 진법인데, 산천이 험하여 군사들이 대오를 이루기가 어려울 때 극소수의 병력으로 최대한 분산하여 적의 포위섬멸작전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진법이였다.⁵³⁾ 따라서 女眞이 사용하던 진법을 조선군에서도 받아들여 빠른 기병전술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癸丑陣說』의 應敵부분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사료에서도 확인되듯이

52) 鳥雲陣으로 진을 바꿀 때 기본적으로 방패수가 먼저 중군을 지키고 창검수들이 방패수 바깥쪽으로 2열을 지어 이동하여 자리를 잡고 4면을 방어하게 된다.

53)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4月 26日, 癸酉條. “且野人布陣 鳥散雲行 不成行伍 彼衆我寡 務以圍把 彼寡我衆 隨形欲退 依木附石 競發強弓 我軍蜂屯蟻聚 迎中賊 矢 人馬多傷.”

正兵이든 奇兵이든 步兵이 방어에 주력하고 騎兵이 주력 공격을 담당하는 것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世宗 말년에 몽고족의 일원인 오이라트족을 정벌하기 위해 출병한 명나라 황제 英宗이 오히려 포로가 된 사건인 ‘土木의 變’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몽고족까지 요동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조선국경 지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분쟁 지역화되었다.⁵⁴⁾

이러한 북방지역의 분쟁상황이 지속되면서 文宗代에는 군사조직의 전반적인 체제 확립을 위한 兵書인 『五衛陣法』이 편찬되었다.⁵⁵⁾ 그런데 『五衛陣法』은 조선전기 진법체제의 완성이라고 할 만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도법과 군사운용을 담고 있어 文宗代에 갑자기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太祖代부터 시작해 온 일련의 군사 개혁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五衛陣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군과 지방군을 모두 아울러 한꺼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훈련체제와 군령체제를 구축한 것에 있다.

대표적으로 이전의 병서의 경우는 주로 북방의 국지전적인 전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병력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54) ‘土木의 變’은 오이라트족의 족장 예센이 여진족을 압박할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明과 대치국면 중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여진족과 맞닿아 있는 조선 또한 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土木의 變’과 관련한 당대 국제정세는 남의현, 「明代 ‘土木의 變’과 北邊 防禦戰略의 變化- 河套와 遼東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중국학연구』 56집, 2007이 가장 상세하다.

55) 文宗은 世宗 27年(1445)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지만 당시에 外交와 國防과 관련한 업무는 世宗이 직접 관장했었으며, 이후 1450년 2월 國王이 된 후 2년간의 짧은 재위기간을 가져 군사상의 많은 변화는 이끌어 낼 수 없었다.

56) 『五衛陣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정혜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94~106쪽. 참고; 이 兵書의 편찬 작업은 文宗이 뼈대를 세우고 김종수와 현직 武官들을 首陽大君(훗날 世祖)의 책임 하에 작업을 했기에 世祖의 軍務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世祖 1년에 『五衛陣法』을 개정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보급했기에 世祖의 역할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成宗 23년에 활자판을 수정하여 다시 복간하기에 이른다.

한다면, 『五衛陣法』은 단일한 지휘체계 안에 전 병력을 수용하여 단일한 전법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군사훈련 및 체계의 단일화는 이 병서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편제의 구분 중 중앙군을 5사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⁵⁷⁾ 구체적으로 5사로 중앙군을 개편함으로써 오위체제 하에 5部-4統의 기본 체제와 함께 5인을 1伍로 하여 25인을 1隊, 125인을 1旅로 하는 다른 편성방식을 활용하여 統의 인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편성인원의 증감이 있더라도 지휘체계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⁵⁸⁾ 특히 이 병서에서는 그 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遊軍에 대하여 각 衛에 별도로 遊軍을 전체병력의 10분의 3을 두는 것으로 확정하고 5領을 뒤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部에는 각각 2統의 騎兵과 步兵을 균등하게 배치하여 戰統과 駐統으로 구분하여 전투발생시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오위체제에서 각 부에 기병과 보병의 편성숫자 각각 2統씩 5:5로 배치한 것은 진형방어에는 보병이 주로 활용되고 공격부분에서 기병을 적극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료를 보면 기병 중심의 전술전개 방식을 알 수 있다.

(9) 勇怯之勢三- 좌군과 우군이 결진하고 서로 대치한 다음, 객진이 먼저 출병하여 주진에 접근한다. ... (중략)... 객진의 군사가 또 싸우지 못하고 철수하면, 주진에서는 다시 유군을 약간 출동시켜 이들을 추격하다가, 객군이 되돌아 공격해 오면 또 다시 유군은 돌아온다. 객군이 또 싸우지 못하고 철수하려하면, 이때에 주진에서는 은밀히 奇兵을 출동시켜서 좌·우익을

57) 『文宗實錄』 卷9, 文宗 1年 9月 28日, 癸亥條. 前代인 世宗 26년에 10사체제로 운영되었다가, 12사까지 확대한 것을 文宗代 오위체제에 준하여 5사로 통폐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앙군도 동일한 지휘체제로 진법훈련이 가능해졌다.

58) 이러한 오위체제로 부대를 편성할 경우 만약 1개 隊를 統으로 하다면 5衛의 정군은 모두 2천5백 명이 된다. 遊軍의 수는 1천71명으로 衛마다 2백14명, 領마다 42~3명이 된다. 만약 1개 旅를 통으로 한다면 5衛의 병력은 모두 1만 2천5백 명, 遊軍의 수는 5천3백56명으로서, 衛마다 1천71명, 領마다 2백14명이 된다.

펼치고 철수하려는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다시 전통을 출동시켜 크게 외치면서 적을 협공한다. [객진의 군사가 3회에 걸쳐 도전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철수할 무렵, 주진의 대장은 은밀히 중위의 유군 및 기병 전통을 우측방으로 출동시키고, 후위의 유군 및 기병 전통은 좌측방으로 출동시켜서 兩翼으로 급히 우회하여 객진의 퇴로를 차단하되, 蠶를 흔들고 북을 요란히 울리며 함성을 크게 지르면서 공격한다.]⁵⁹⁾

위의 사료는 『五衛陣法』의 전투훈련 중 ‘勇怯之勢 三’으로 아군을 主軍과 客軍으로 편성한 후 서로 攻防을 주고받는 훈련방법이다. 내용은 客軍(가상의 적군)이 퇴각할 때 이를 요격하는 방법으로 中衛의 遊軍과 騎兵 戰統이 우측으로 움직이고, 後衛의 遊軍 및 騎兵 戰統이 좌측방으로 움직여 빠른 기동력을 갖춘 기병을 활용하여 날개를 펼치듯 적을 포위 섬멸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훈련방법은 『五衛陣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병과 유군이 핵심 전투대오를 형성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五衛陣法』에는 효과적으로 軍陣을 움직이기 위하여 다양한 軍旗와 신호체계에 활용하는 군사용 악기인 鼓, 金, 大角, 蠶 등을 신호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결진을 비롯한 진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였다.⁶⁰⁾

이후 世祖代에는 여진과의 군사적 충돌이 더욱 잦아졌으나 지휘체계상에서 形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였다. 다음의 사료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10) 오랑개의 騎兵 3천 명이 날랜 말과 우수한 군졸로 갑작스럽게 충돌해 와서 우리의 1衛를 침범하는데, 大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衛將이 움직이지 못하고, 衛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部將이 움직이지 못하고, 部將이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統將이 움직이지 못하고, 統將이

59) 『五衛陣法』 勇怯之勢三.

60) 여기에 활용되는 군사 신호 체계용 기치나 악기의 신호방식은 최형국, 「朝鮮後期 軍事 信號體系 研究-『兵學指南演義』를 中心으로」, 『학예지』 15,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8. 참조.

미처 形名을 사용하지 못하면 旂隊의 伍卒들도 모두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차례대로 形名을 사용하기를 기다린다면 죽거나 사로잡혀 거의 다 없어지고 陣勢는 이미 어지럽게 되어서, 우리 군사가 비록 3만 명이 되더라도 패전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어 오랑캐가 騎兵이 채찍을 휘두르고 통소를 불면서 북을 치면 前進하고 鎗을 치면 퇴각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말 것이니, 이를 待備할 술책이 있겠는가.⁶¹⁾

이러한 形名の 문제는 군사들을 지휘하는 將帥를 비롯한 將校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이를 보완하는 병서들이 世祖代에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 대표적으로 軍令의 통일화를 위하여 군의 운용법을 담은 ‘兵說’과 장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담은 ‘將說’, 그리고 장수들의 실전대응 훈련을 독려하는 ‘諭將篇’ 등을 한권으로 묶은 『兵將說』의 편찬이었다. 또한 기병들의 形名훈련을 위해 특별히 小形名을 새롭게 제작해 이에 따라 군사훈련을 하는 등 기병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갔다.⁶²⁾

특히 世祖의 경우 어린 조카인 端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강제적으로 왕위를 찬탈했기에 단종복위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병서편찬을 통해 왕권의 강화를 유지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⁶³⁾ 또한 『兵政』의 경우도 軍令 계통을 정비하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兵書로 중앙군의 入直방법과 大閱 및 發兵 등에 대한 세세한 절차를 담아 중앙군을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이 밖에도 文宗代 편찬된 『五衛陣法』에 대한 개정판을 비롯하여 『陣法』, 『歷代兵要』, 『武經七書 註解』 등 다양한 병서들이 편찬되어 군사적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위와 같이 조선초기의 북방 여진족과의 대립은 군사전략과 전술에

61) 『世祖實錄』 卷18, 世祖 5年 12月 16日, 甲子條.

62) 『世祖實錄』 卷31, 世祖 9年 9月 20日, 丙子條.

63) 최형국,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118~119쪽.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여진의 핵심 병종인 기병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군의 병서편찬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군 기병 강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존재가 전투에 활용할 戰馬였기에 조선은 제주를 중심으로 전마생산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3. 조선초기 제주 馬政의 변화와 戰馬 확보

가. 濟州의 지정학적 위치와 馬政

제주도는 기후가 온난하고 한라산 기슭에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어 말의 번식에 가장 중요한 水草가 풍부해서 말의 사육에 가장 좋은 입지 환경을 갖췄다. 특히 육지와는 다르게 호랑이나 표범을 비롯한 猛獸가 없어서 목장을 운영하는 데 위험요소가 적어 양질의 戰馬를 생산할 수 있었다.⁶⁴⁾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牧馬場이 된 것은 삼별초의 항쟁이후 元의 간섭기였던 1276년(高麗 忠烈王 2年)에 제주도에 種馬 160필을 방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⁶⁵⁾ 이후 元이 몽골식 목장을 섬 전체로 확대하여 高麗代에 모두 15개의 목장이 건설되었다.⁶⁶⁾

그러나 조선초기 馬政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주말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 육지에 인접한 여러 섬에 방목하도록 하는 등 제주도의 말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⁷⁾ 특히 명에서

64) 『太宗實錄』 卷16, 太宗 8年 12月 25日, 戊戌條; 말의 생산에서 虎患은 질병과 더불어 가장 위협요인이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목장 및 제주 戰馬와 관련한 연구는 南都泳, 『韓國馬政史』-마문화연구총서 I,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을 참고한다.

65) 『高麗史』 卷28, 世家 忠烈王 2年 8月 丁亥.

66) 南都泳, 앞의 책, 1996, 232~233쪽.

67)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1月 19日, 甲戌條; 『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 2月 6日, 辛酉條.

濟州馬의 우수성을 이유로 징마요구가 많았는데, 海路가 險阻하여 시급하게 말을 바쳐야할 경우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⁶⁸⁾ 심지어 임금이 직접 명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관원들에게 거짓으로 왜인들의 난리로 제주마가 絶種되었다고 보고하라고 했을 만큼 徵馬는 민감한 부분이었다.⁶⁹⁾

濟州의 馬政이 본격적으로 관리된 것은 世宗初로 明의 徵馬요구와 함께 女眞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군사적으로 戰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의 馬政도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馬政 관리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11) 이제부터는 濟州에서 말을 기르는 예에 따라서 職員과 牧子를 정하여, 암말 10필에 새끼 7, 8필을 치는 것을 上等으로 정하고, 5, 6필을 치는 것을 中等으로 정하고, 3, 4필을 치는 것을 下等으로 정하여, 번식시킨 것이 많은 자는 상을 주고 적은 자는 벌을 주며, 마음을 쓰지 않아 말을 죽게 한 자는 말의 값을 물려받아 屬公하게 하고, 奴子의 자식을 牧子로 더 정할 것이며, 牧場이 있는 각 고을의 수령은 모두 監牧官을 겸하게 하여, 오로지 말 기르는 일을 맡게 하여, 매년 연말에는 그 번식시킨 것이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褒賞하거나 貶黜할 것입니다.⁷⁰⁾

위의 사료를 보면 濟州 馬政 관리를 기준으로 牧子가 관리하는 암말의 번식량에 따라 상벌을 나누어 주고, 각 고을의 수령이 監牧官을 겸하게 하여 마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좋은 말이 徵馬로 인하여 계속 육지로 유출되어 제주마의 크기가 갈수록

68) 『太宗實錄』卷29, 太宗 15年 1月 21日, 庚申條.

69) 『世宗實錄』卷13, 世宗 3年 9月 6日, 丙寅條.

70) 『世宗實錄』卷18, 世宗 4年 閏12月 20日, 癸酉條. “自今依濟州牧馬例 定職員牧子 雌馬十四 孳息七八匹爲上等 五六匹爲中等 三四匹爲下爲 孳息多者賞 小者罰 不用心致死者推徵 以屬公法孫奴子 加定爲牧子 牧場所在各官守令 皆兼監牧 專掌牧養 每當年終 考其孳息多小 以爲褒貶.”

작아지자 韃靼을 비롯한 만주의 種馬생산지에서 좋은 말을 들여와 품종개량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⁷¹⁾

이후 女眞의 전술체계에 부합하기 위하여 朝鮮軍 기병강화 정책에 따른 馬政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대되어 전국 목장조직을 개편하기에 까지 이른다. 다음의 사료는 당시 馬政의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부분이 중심이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12) 병조에서 계하기를, “馬政은 軍國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므로, 국가에서 각도에 監牧을 나누어 두고 馬匹을 繁殖시키고 있으나, 지금 말이 번식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考査하고 檢査하는 법이 극진하지 않는 데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雌馬 1백 필을 一群으로 하여 群頭 1인을 정하고, 50필마다 각각 群副 1인을, 매 25필마다 牧子 1인을 정하며,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監牧官이라 일컫는 監牧을 나누어 보내어, 매 一群마다 1년에 80필 이상을 번식시킨 것을 상등, 60필 이상을 중등, 60필 미만을 하등으로 하여, 이것으로 黜陟하되, 30개월 안에 상등이 세 번이면 資級을 올려 주고, 상등이 한 번이면 位階는 그대로 둔 채 任用하며, 세 번 중등이면 벼슬을 깎아서 내보내고, 하등은 즉시 論罪하고 파면하여 내쫓으며, 그 번식 성적이 하등인 것은 群頭·群副·牧子도 모두 논죄하게 하고, 마필의 죽은 것, 잃어버린 것, 손상하여 쓸 수 없게 된 것은 모두 律의 조문에 따라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⁷²⁾

위의 사료를 보면 6품 이상의 전임 감목관이 각 馬場마다 배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1君(암말 100마리)을 관리하여 번식량에 따라 감목관에게 상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마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감목관에 대한 처우개선과 현지에서 올라오는 번식량의

71)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6日, 戊申條.

72) 『世宗實錄』卷30, 世宗 7年 11月 25日, 庚申條. “兵曹啓 馬政 軍國所重 國家於各道 分置監牧 孳息馬匹 然至今馬不繁殖者 良由考察之法未盡也 自今雌馬百匹爲一群 定群頭一人 每五十四各定群副一人 每二十五匹定牧子一人 諳事六品以上稱監牧官 分遣監牧 每一群一年孳息八十四以上爲上等 六十四以上爲中等 未滿六十四爲下等 以此黜陟 三十箇月內 三上加資 一上仍資錄用 三中貶黜 下等隨卽論罪罷黜 其下等孳息群頭 群副 牧子 并令論罪 死者失者 損傷不堪用者 一依律文施行 從之.”

증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戰馬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牧子와 牧馬軍을 명부로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⁷³⁾ 제주의 경우는 世宗 11년에는 한라산 변두리 사면 약 4息 거리를 중심으로 목장을 축장해서 公私馬를 가리지 않고 방목해서 戰馬를 확보하기도 하였다.⁷⁴⁾ 이후 世宗이 직접 ‘馬政은 軍政’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各道의 목장에서 생산된 말의 번식숫자를 확인하게⁷⁵⁾, 2품 이상의 고위직 중 말먹이는 법을 아는 사람을 천거하여 각도의 監牧官으로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馬政 강화책을 펼쳤다.⁷⁶⁾

나. 濟州 戰馬의 확보와 한계

이러한 제주 戰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다른 도와는 다른 특별한 계책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3) - 국립 목장 안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제주의 수령과 監牧官을 시키어 가려 내어서 육지로 내보내게 할 것이며,
 - 목장에 담을 쌓은 후로는 물과 풀이 부족하여 말이 잘 번식되지 못하니, 목장 밖의 묵은 땅에다가 적당한 데로 내어놓게 허락할 것이며,
 - 공사간 목장들에 품질 좋은 상마는 ‘父’라는 낙인을 찍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함은 이미 전에 입법하였으나, 사사 목장에서는 그 본 주인이 뒷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다 팔아 내보내니, 그 육지로 나갈 때에 만일 ‘父’라는 낙인이 찍힌 놈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언제나 사사 목장에서 육지로 내어보낼 때마다 제주의 각 관원이 그 털빛깔과 말 주인의 성명을 갖추

73) 『世宗實錄』 卷40, 世宗 10年 4月 7日, 己未條.

74) 『世宗實錄』 卷45, 世宗 11年 8月 26日, 更子條.

75)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1月 24日, 己丑條.

76) 『世宗實錄』 卷52, 世宗 13年 6月 20日, 壬子條.

기록하여서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하륙하는 곳의 수령으로 하여금 상고해 살피게 할 것이며,

- 제주 경내에 전부터 기르던 몸체가 적은 상마는 날짜를 한정하여 관가에 보고하고 불알을 까게 하고, 만일 영을 어긴 것은 관에 몰수하게 한다.⁷⁷⁾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주마에 대한 특별 관리 규정을 만들어 보다 안정적으로 戰馬를 확보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戰馬로 활용할 수 있는 체구가 좋은 말은 ‘父’리는 표시를 말의 엉덩이에 낙인하여 밀반출을 막는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⁸⁾

이후 1차 야인 정벌을 마친 이듬해인 世宗 16년에는 兵曹에서 마정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면서 ‘馬政이 軍國의 急務’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⁷⁹⁾ 이러한 마정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각도의 監牧官을 2품 이상으로 하여 천거하도록 하고, 제주의 경우는 양질의 戰馬생산을 위하여 토착인을 감목관으로 했던 것을 폐지하고 따로 馬政에 밝고 익숙한 사람을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게 하였다.⁸⁰⁾ 제주의 경우 토관세력이 강해 전마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취해진 조치였다. 또한 제주로 부임한 감목관은 감찰과 감목의 직책을 겸하게 하여 濟州判官·旌義縣監·大靜縣監 등의 勤慢을 검찰하게 하여 마정관리자가 제주 전체를 통솔하는 형태로 특별히 운영하도록 하였다.⁸¹⁾

77) 『世宗實錄』 卷61, 世宗 15年 9月 9日, 戊子條. “一 國屯馬內體小有咎馬 令濟州守令監牧官揀擇出陸 一 自築牧場以後 水草不足 馬不蕃育 許於場外陳荒之地 隨宜出放 一 公私屯品好牡馬 以父字烙印 不許出陸 已曾立法 然私屯馬 則其本主不顧後慮 竝皆放賣 其出陸時 如有父字烙印者 還給本主 每於私出陸時 濟州各官 具其毛色及馬主姓名 報于監司 監司令下陸處守令考察 一 濟州境內曾畜體小牡馬 限日告官作驢 如有犯令者 沒官.”

78) 육지의 경우는 각도의 목장 중 서로 인접해서 말이 섞일 경우를 대비해서 각 목장의 이름을 따서 화인을 찍어 구별하게 하였다. 『文宗實錄』 卷6, 文宗 1年 月 3日, 壬申條.

79) 『世宗實錄』 卷63, 世宗 16年 1月 16日, 甲午條.

80) 李元鎮, 『耽羅志』 風俗條.

81) 『世宗實錄』 卷64, 世宗 16年 4月 26日, 癸酉條.

그리고 제주에서 밀도살을 통한 牛馬皮 무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모두 육지로 강제이송 하도록 하고, 한라산의 山上과 山下 모두 평지에서 말을 키울 수 있는 곳은 경작 자체를 금지하게 하여 양질의 戰馬확보를 위해 제주를 특별구역으로 활용하였다.⁸²⁾ 심지어 목장 밖에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땅도 본인이 직접 목장을 쌓게 하고, 묵은 땅조차도 경작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마정관리를 하였다.⁸³⁾ 이후 제주의 마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따로 파견된 전임감목관의 역할을 濟州牧使가 맡고 그 아래로 세 고을을 통솔하여 馬政에 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⁸⁴⁾ 또한 제주 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책을 바탕으로 각 도의 마정까지도 일원화하여 관리가 되면서 戰馬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북방방어의 핵심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에 일정 수의 전마가 확보 될 수 있었다.⁸⁵⁾

이러한 世宗代 제주 마정에 대한 관심은 濟州牧使의 파견이나 사직 때에 늘 국왕이 말의 牧養 관련 업무를 챙겨 말의 숫자나 크기까지 직접 확인하는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⁸⁶⁾ 이와 함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제주 뿐 만 아니라 전라도나 황해도 인근의 섬에 제주에서 생산된 암말 수백필을 수시로 牧養하여 급박한 징마 요구나 전마 부족 부분을 채우는 대책까지 고려되었다.⁸⁷⁾

그러나 제주도라는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海路를 통하여 육지로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進馬船이 침몰하여 官員은 물론이고

82) 『世宗實錄』 卷64, 世宗 16年 6月 14日, 己未條.

83) 이러한 목장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제주 백성들의 생계가 문제시 되자 世宗 24년 7월에는 한라산의 목장과 옛목장을 해마다 교대로 경작하게 하여 民生과 馬政 모두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世宗實錄』 卷97, 世宗 24年 7月 29日, 丁亥條.

84) 『世宗實錄』 卷89, 世宗 22年 5月 6日, 丁未條.

85) 『世宗實錄』 卷90, 世宗 22年 8月 4日, 癸酉條.: 이러한 지속적인 마정관리책으로 제주도에 9,792필(世宗 25년) 을 비롯하여 나머지 지역에 22,406필까지 확대되었다.

86) 『世宗實錄』 卷93, 世宗 23年 8月 7日, 辛未條; 『世宗實錄』 卷125, 世宗 31年 8月 19日, 丙寅條.

87)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3月 2日, 丙寅條.

말까지 전부 물에 빠져 죽거나⁸⁸⁾, 크고 성질이 온순한 품종의 말이 明의 徵馬나 御乘馬 등의 納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품종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였다.⁸⁹⁾ 대표적으로 明나라의 徵馬요구에 따라 한해에 최대 5,000필에 가까운 말이 한꺼번에 유출되기까지 할 정도여서 사회적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하였다.⁹⁰⁾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의 馬政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都城에서 가까운 江華島나 水草가가 좋은 전라도의 여러 섬 등에 새로운 牧場을 건설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⁹¹⁾

이후 文宗代에는 북방의 女眞 방어를 위해 특별히 濟州나 下三道에서 길러진 熟馬를 다른 지방의 兒馬와 바꿔 平安道の 戰馬로 보급하고 목양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기도 하였다.⁹²⁾ 대표적으로 文宗 1년에는 제주와 목양환경이 비슷한 全羅道 珍島郡의 읍지를 근처의 국영 목장인 黃原으로 옮기고 진도 전체를 목장으로 만드는 등 전마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마정정책이 운영되었다.⁹³⁾ 이러한 文宗代 馬政에 대한 관심은 지방 고을의 邑 세 곳을 통째로 옮기면서까지 진행되어

88)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6月 4日, 己卯條;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1月 6日, 辛未條.

89) 『世宗實錄』 卷49, 世宗 12年 9月 1日, 己亥條; 『世宗實錄』 卷289, 世宗 25年 4月 日, 丙戌條; 이러한 제주마의 작아진 크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種馬를 요동을 통해서 들여오기도 하였는데, 達靺馬로 불리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번식숫자보다 육지로 반출되는 숫자가 많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世宗實錄』 卷25, 世宗 6年 8月 6日, 戊申條.

90) 『世宗實錄』 卷127, 世宗 32年 1月 13日, 己丑條; 明은 건국이후 북방의 몽고족을 비롯한 유목민족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활동을 펼쳤다. 騎兵을 주력 병종으로 하는 유목민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戰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에 따라 朝鮮의 경우 元代부터 지속된 징마요구가 明代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91) 『世宗實錄』 卷36, 世宗 9年 6月 2日, 己未條; 『世宗實錄』 卷39, 世宗 9年 8月 12日, 丁卯條; 『世宗實錄』 卷55, 世宗 14年 3月 19日, 戊寅條; 『世宗實錄』 卷60, 世宗 15年 5月 8日, 庚申條; 『世宗實錄』 卷110, 世宗 27年 10月 9日, 庚戌條.

92) 『文宗實錄』 卷1, 文宗 卽位年 3月 17日, 辛酉條.

93) 『文宗實錄』 卷7, 文宗 1年 5月 13日, 庚戌條.

모두 10곳의 신규 牧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⁹⁴⁾

그리고 端宗代에도 이러한 마정 강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제주 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전라도 靈光郡의 구수곶이(九岫串), 海南縣의 독동음곶이(禿冬音串)·露島, 康津縣의 계참곶이(桂站串)·召藥島, 順天府의 여수곶이(麗水串), 興陽縣의 外伊每島와 慶尙道 南海縣의 서면곶이(西面串), 柒原縣의 귀산곶이(龜山串), 東萊縣의 石浦 등이 신규 목장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⁹⁵⁾ 또한 제주마 중 크기가 작아 戰馬로 활용되기 어려운 말을 가려내어 육지로 刷出하여 양질의 전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⁹⁶⁾

지금까지 언급한 牧場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영목장으로 國馬를 관리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민간의 말도 戰馬로 수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에 백성들이 개인 말을 키우기 위해 섬이나 해안가의 목초지를 개발하는 것을 司僕侍에서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정도로 다양한 관심을 기울였다.⁹⁷⁾

世祖代에는 女眞의 기병전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변방 방어 뿐만 아니라 내륙에 핵심 巨鎭을 설치하여 방어력을 두텁게 하는 鎭管體制를 새롭게 정착시켜 각 邑을 군사조직인 鎭으로 편성하여 행정과 군사를 일원화하는 등의 빠른 대응능력과 지역방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⁹⁸⁾ 남방의 하삼도의 경우도 왜구를 비롯한 외적의 침입에 거진을 중심으로 연합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진관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 제주의 경우도 제주목사가 관할하는 제주읍을 핵심

94) 『文宗實錄』卷12, 文宗 2年 2月 19日, 癸未條.

95) 『端宗實錄』卷5, 端宗 1年 1月 19日, 丁丑條. ; 이후 點馬별감을 통해 현장조사에 들어가 계참곶이, 석을포, 금산곶이 등에 모두 6천여 필을 기를 수 있는 목장이 만들어졌다. 『端宗實錄』卷7, 端宗 1年 7月 21日, 丙子條.

96) 『端宗實錄』卷13, 端宗 3年 1月 21日, 丁卯條.

97) 『端宗實錄』卷12, 端宗 2年 9月 15日, 癸亥條.

98) 오중록, 「朝鮮初期 兩界의 軍事制度和 國防體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82~220쪽.

主鎮인 中翼으로 삼고 旌義, 大靜을 각각 左翼과 右翼으로 편성하여 진관체제로 전환하였다.⁹⁹⁾ 이러한 진관체제로의 전환은 북방의 경우는 여진에 대한 대응체제로 볼 수 있으며, 남부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약탈을 일삼았던 倭寇에 대한 군사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약탈했던 왜구에 대한 방비책도 원거리에서 火炮를 발사하고, 이후 상륙함과 동시에 騎兵을 이용하여 내륙으로의 진입을 막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기병강화 양상은 지속되었다.¹⁰⁰⁾ 이러한 지속적인 戰馬 보급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世宗代부터 발생한 해주의 牧養 환경으로 인하여 전마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주의 다른 목장에 國馬를 따로 위탁관리하는 방법은 물론이고¹⁰¹⁾, 種馬 관리를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다양한 馬政 안정책이 펼쳐지기도 하였다.¹⁰²⁾

또한 내륙 목장의 경우 지속적인 虎患으로부터 戰馬를 보호하기 위하여 國王이 직접 捉虎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¹⁰³⁾ 그리고 내륙 중 전라도 섬과 강원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신규 목장을 만드는 등 목양지역을 점차 확대시켰다.¹⁰⁴⁾ 여기에 목장 확대 정책과 함께 말을 키우는 중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조선 최초로 馬醫書를 새롭게 편찬하기도 하였다.¹⁰⁵⁾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馬政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戰馬로 활용할

99)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9月 11日, 癸未條; 『世祖實錄』 卷11, 世祖 4年 2月 26日, 乙卯條.

100) 崔炯國, 「朝鮮 正祖代 壯勇營 創設과 馬上武藝의 戰術의 特性」, 『학예지』 17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10, 187~188쪽.

101) 『世祖實錄』 卷25, 世祖 7年 7月 23日, 辛酉條.

102) 『世祖實錄』 卷25, 世祖 7年 7月 27日, 乙丑條.

103) 『世祖實錄』 卷31, 世祖 9年 8月 24日, 庚戌條; 『世祖實錄』 卷33, 世祖 10年 5月 26日, 戊寅條.

104) 『世祖實錄』 卷35, 世祖 11年 3月 13日, 庚申條;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2月 17日, 己丑條.

105)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4月 14日, 甲寅條.

말이 부족해서 여진과 군사적 충돌이 가장 잦았던 咸吉道の 경우는 각 鎭에서 면포를 걷어 2,500필의 胡馬를 수입해서 부족분을 채우기도 하였다.¹⁰⁶⁾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濟州는 단일 지역 중 조선에서 가장 많은 戰馬를 생산할 수 있는 牧養地로 인정되어 4-5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點馬官을 파견하여 말의 사육상태를 중앙에서 직접 확인하였다.¹⁰⁷⁾

위와 같이 조선 초기에 제주도의 마정 확대 및 다양한 전마확보 방안은 북방 여진족과의 대립 속에서 전술체제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초기 세종~세조대 군사 전략 변화와 병서편찬 추이의 연관성 속에서 제주 마정 운영 및 전마 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먼저 전투사적 배경으로 세종 16년에 진행된 제1차 야인정벌을 계기로 여진의 군사전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기병의 역할을 대폭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세종 19년에 진행된 제2차 야인정벌은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술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세조대 역시 모란위 전투를 비롯한 여진과의 전투에서 기병의 역할은 계속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투사적 배경은 곧 병서 편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으로 여진의 기본 전술이 보병은 없고, 전원 기병체제를 유지했기에 세종 초에 편찬된 『陣圖法』에서는 적 기병을 보병이 방어하고 이후

106) 『世祖實錄』 卷39, 世祖 12年 9月 11日, 己卯條.

107) 『中宗實錄』 卷60, 世祖 23年 2月 15日, 丁巳條.

후미의 기창대와 기사대가 기동력을 확보하며 움직이는 전술체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세종 15년에 편찬된 『癸丑陣說』에는 여진과의 직접적인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陣圖法』보다 실전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병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군령 부분의 강화와 함께 병력배치에 있어서 기존보다 두 배로 폭을 넓혀 기병의 활동력을 증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진의 대표적인 공격 진형인 조운진을 흡수 발전시켜 이에 대한 공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여진 기병에 대항하는 방식이 대폭 가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종대에 편찬된 『五衛陣法』에서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모두 아울러 한꺼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술체계가 확립되었다. 『五衛陣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병과 보병의 편성숫자를 5:5로 균등 배치하여 방어에는 보병이 그리고 공격에는 기병이 중심을 이뤄 진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보병에 비해 3~5배의 전투력 우위가 있는 기병을 동일하게 배치한 것을 볼 때 전군을 동원할 때에도 기병중심의 전술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세조대에는 여진 기병과의 전투 중 군령체계가 미비하여 빠른 기동전에 대처할 수 없었기에 군령과 장수의 자질에 관한 『兵將說』 등의 병서가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초기 세종~세조대 여진과의 지속적인 마찰은 기병강화라는 현실적인 전술체제 전환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가장 많은 戰馬 생산지인 제주 역시 이러한 배경에 따라 마정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려대부터 시작된 제주도 마정은 세종대에 이르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대에 시작된 전국단위의 통합된 마정관리 계획을 비롯하여 제주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여러 국마목장을 확대시켰던 일련의 작업은 여진과의 분쟁이 첨예해 질수록 더욱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종대 1차 야인정벌 이후 마정이 군국의 급무임을 강조하며 제주에는 토관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감목관이 특별히 파견되는 등 일련의 집중적인 마정정책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제주로 부임하는 목사에게는 지속적으로 마정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러한 여진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로를 통하여 육지로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풍랑에 進馬船이 침몰되는 등 변수가 많아 중앙정부의 고민이 많은 지역이었다. 또한 명의 과대한 징마요구로 인해 제주마의 품종관리가 어려워져 마정운영에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전라도와 남해 인근의 제주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곳을 목마장으로 적극 개척한 것도 제주 목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 문종과 단종대에 진행된 도서 인근의 목장화 또한 이러한 고민해결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조대의 경우도 제주의 전마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국마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마정정책이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말의 안정적인 사육을 위하여 내륙 목장의 虎患을 제거하거나, 馬醫書를 새롭게 편찬하여 보급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이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제주 및 내륙 목장에 대한 다양한 마정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마 부족 상황은 계속되어 세조대에는 수천마리의 전마를 따로 수입하거나 종마를 비싸게 들여와 번식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군에서 기병전술이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수요가 증대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전술의 변화는 병서편찬 내용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더 나아가 전술에 활용할 군사자원관리의 변화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진과의 대립 속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기병 문제와 병서 편찬의 연관관계 그리고

전마 확보의 부분은 일련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군사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인 시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당대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4. 8. 4,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조선군, 기병,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술, 마상무예, 마정, 제주도, 무예사, 군사사

<ABSTRACT>

Military Tactics system and Jeju Island War-horse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Choi, Hyeong-guk

This study i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productions of War-horses on Jeju Island with the progress of tactics and on strategy based o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orthern race, Jurchen,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The reinforcement of the cavalry among the change of tac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brought expansion of policy for cavalry. Therefore, Jeju Island became the center for producing horses for battle under the best environment. First, primary and secondary conquests against northern race progressed with analysis of battle history during King Sejong's reign had become a base for reorganization of cavalry oriented tactics. As a result, books on strategy 『Jinbup』, 『Kyechookjinseol』 published in King Sejong's reign were composed in the way to reinforce cavalry tactics. Especially, strong trends for reinforcement of cavalry would be found by the case which northern race's cavalry tactic 'Jounjin' was directly accepted and spread to all the soldiers in Joseon dynasty from the strategy book 『Kyechookjinseol』.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for the cavalry oriented tactics was found as well and the ratio of Infantry to cavalry was 5:5 from the formation 『Owuijinbup』, King MoonJong. According to the reinforcement for cavalry policy, centralized management agencies had focused on Jeju horse ranch to produce War-horses since King Sejong's reign. However, the limitation

of producing war horses was emerged by loss in transit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and degeneration of breed caused by continuous horse collection. Consequently, import for breeding horses and reclamation of new horse ranch near Kanghwa island in Jeonla province where has similar regional characteristics as Jeju island to raise horses could be solu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oducing horses.

Key Words : Joseon Army(朝鮮軍), Cavalry(騎兵),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Tactics(戰術), Martial Arts on Horseback(馬上武藝), Horse policy(馬政) Jeju Island(濟州道), History of Martial arts(武藝史), History of Military

